

### ◎한국 IPG의 활동

- 제33회 한국IPG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01
- 2021년도 건의사항 결과 보고 04

### ◎IP를 알자

- 한국IP뉴스 05
-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6
  - 한국의 상표심사기간, 장기화 조정
  - 한국특허청, 정권 교체 후 첫 지식재산분야 중개계획 발표
  - 특허출원 세계3위를 향한 한국 정부의 야망?

### NEW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 MEGAPHONE 사무국으로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제트로 한국 지재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QUIZ 퀴즈를 맞춰봅시다!

2022년 9월, 한국 특허청은 제18회 '국제 특허 정보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박람회의 이름을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 ① KIPRIS   ② PATINEX   ③ J-PlatPat

※ 정답은 본지 4페이지 하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한국 IPG의 활동

## 제33회 한국IPG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품과 서비스 기술, 디자인, 네이밍 등은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 후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조사를 통해 연구 개발의 힌트를 얻거나 권리침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중에는 J-PlatPat가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KIPRIS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서는 2022년10월에 ‘KIPRIS 간이 매뉴얼(특허·실용신안 편, 상표 편, 디자인 편, 심판·패밀리 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2022년11월9일, 제33회 한국IPG세미나(일본 특허청 위탁사업)를 개최하여, 매뉴얼을 작성한 특허법인NAM&NAM의 아즈마 노부히데 호주상표변리사가 KIPRIS 활용방법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또한 JETRO서울사무소의 츠치야 부소장이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 KIPRIS 활용방법

#### 1. KIPRIS란?

KIPRI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는 한국 IP 정보서비스의 영어 약자입니다. KIPRIS 서비스는 무료이며, 1996년 부터 한국특허청 산하의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JETRO서울사무소가 2022년 10월에 공개한 KIPRIS 간이 매뉴얼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심판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본격적인 조사는 부담스럽지만 간단한 조사라면 스스로 하고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KIPRIS 활용 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 특허법인NAM&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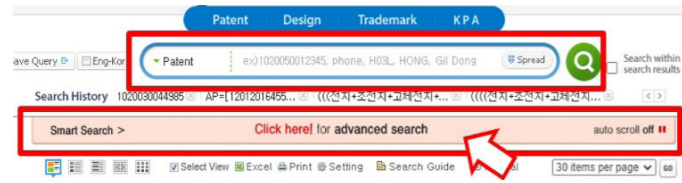


아즈마 노부히데  
호주상표변리사

## II. KIPRIS 활용 방법

### 1. 번호 조회

번호 조회에는, 상단에 붉은 선으로 감싼 검색란에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과 그 아래 붉은 선으로 감싼 advanced search에 번호를 입력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세미나 발표 자료)

검색란에 입력할 때에는 단순히 번호만 입력하면 되는데, 복수의 안전(예를 들면 출원번호와 공개번호가 동일한 경우)이 검색될 수도 있습니다.

advanced search에는 다양한 검색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적절히 입력하면 찾고싶은 문헌을 정확히 찾을 수 있으며, 해당 문헌의 기술분야, 출원인, 공개번호, 청구항, 경과 정보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IPRIS 간이 매뉴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출원인 등을 입력할 때 팁이 있는데, 바로 'guide'를 클릭해 입력하는 것입니다. 출원인이 한국 재벌계 기업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글로 지명을 입력하면 한 번에 선별할 수 있습니다.

### 2. 사용법 사례

조사하고 싶은 기술분야, 예를 들면 키워드를 전고체 전지 (all-solid-state\*battery)로 검색란에 입력하면 1,005건이 검색됩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 좌측에 있는 'GROUP' 버튼을 클릭하면 연별 출원 건수, 기술 건수, 출원인별 건수 등이 표시되어, 대략적인 경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App. Year	Pub. Year	Req. Year	IPC	CPC	Applicant
2020 (57)	2022 (80)	2021 (72)	H01M (782)	H01M (549)	HYUNDAI MOTOR COM., (105)
2019 (145)	2021 (145)	2022 (89)	G06F (35)	G06F (55)	TOYOTA JIDOSHA KA., (78)
2018 (111)	2020 (123)	2020 (57)	G06Q (19)	C01G (51)	LG Energy Solutio., (68)
2016 (32)	2018 (35)	2018 (50)	C01B (11)	C01B (50)	SAMSUNG ELECTRON., (65)
2021 (89)	2019 (92)	2019 (50)	H04M (11)	H01B (32)	Kia Corporation (64)
2017 (82)	2016 (77)	2017 (28)	H02J (10)	C08F (14)	KOREA INSTITUTE O., (49)
2015 (81)	2017 (77)	2016 (22)	H04N (10)	B60L (13)	FUJIFILM CORPORAT., (35)
2014 (65)	2015 (48)	2015 (16)	B60L (6)	G01R (3)	LG Electronics In., (32)
2013 (26)	2014 (29)	2014 (15)	G01R (8)	C03C (11)	UNIST(ULSAN NATIO., (29)
2012 (25)	2013 (17)	2013 (12)	H01L (8)	C23C (11)	Korea ElectroTech., (29)
2011 (19)	2010 (14)	2012 (9)	H04W (6)	G06Q (11)	KUCF-HYU Industr., (28)

(출처: 세미나 발표 자료)

또한 상세한 분석을 하고 싶을 때에는 엑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좋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dvanced search용 바의 바로 아래에 있는 엑셀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측에 있는 'Online Download' 버튼을 클릭하

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서 다운로드 가능한 내용이 한정되어 있고(청구항과 요약문은 다운 불가능), 한 번에 다운로드 가능한 양도 최대 90건으로 적습니다. 필요한 양이 적다면 괜찮겠지만, 많은 데이터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싶은 경우에는 후자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KIPRIS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3. 유사검색식 및 유사검색 이용

KIPRIS의 영어판과 한국어판은 기능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어판에서는 고도한 검색기능이 제공됩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준비로 구글 크롬 등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해 언젠든 기계번역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두면 해외 문헌을 볼 때 매우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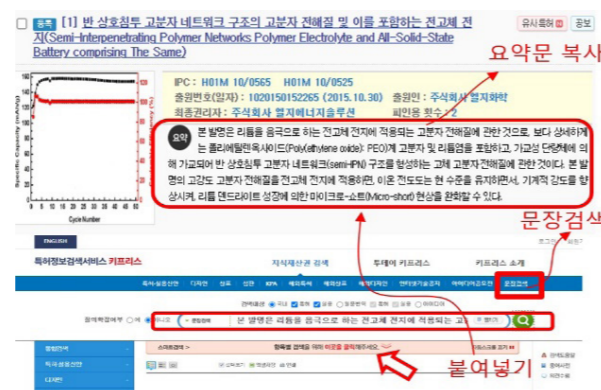
그 후에 한국어판에만 있는 기능인 유사검색식을 통한 검색기능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실용신안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상표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어로 어떤 용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 특허문헌이라면 FI, F-term을 이용해 상세한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한국 특허문헌은 FI, F-term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교묘하게 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KIPRIS가 제공하는 유사검색식을 참고하면 검색식을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검색식 저장 기능도 있으므로 함께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대상이 되는 특허문헌에 관한 유사특허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상특허문헌의 발명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 우측 상단에 분홍색으로 N표시가 되어 있는 유사특허 버튼을 클릭하면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유사특허문헌이 10건 표시됩니다.

### 4. 문장검색 이용

한국어판에는 문장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특허문헌의 요약문 또는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을 복사해 검색란에 붙여넣어 문장을 검색하면 유사특허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사도가 가장 높은 문헌부터 100건이 표시됩니다. 문장검색 시 스마트 검색란에 출원일 등을 설정하면 검색하고 싶은 문헌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세미나 발표 자료)

### 5. 심판정보 취득

KIPRIS에서는 심판정보도 취득할 수 있는데, 심판의 경과정보를 열람하거나 심결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영어판에서는 특허나 상표 등 해당번호를 이용해 심판 정보를 찾아야만 하지만, 한국어판에서는 이외에 검색조건을 적절히 사용해 다양한 심판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PG)

## ●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 (주요 부분만 발췌)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츠치야 신고 부소장

### 1. 한국 현황

#### 1. GDP 추이

코로나 전까지 한국의 실질GDP는 연 3% 전후로 계속 성장했습니다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연간성장률로 한국은행은 2.6%, IMF는 2.3%를 예측하고 있으나, 금리와 물가 상승이 우려스럽습니다.



#### 2. 급격한 금리 인상

한국은행(중앙은행)은 미국 금리 인상 움직임에 맞춰 연달아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정기 예금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시중 은행에 몰리고 있습니다.

#### 3. 코로나19 상황

2021년 말부터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5~6차 대유행)되어, 공식 확인된 숫자만으로도 이미 한국 국민의 과반수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항공편 증가, 비자 면제, 코로나 검사 면제 등 한일 왕래의 벽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양국을 왕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II. 한국 지식재산법 개정 현황

### 1.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의 연장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022년 4월 20일 시행)

기존 30일 이내였던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 개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측에서 건의사항으로 요청해왔던 사항으로, 2020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에 따른 것입니다.

### 2. 분리출원제도의 도입 (특허법) (2022년 4월 20일 시행)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거절결정 유지)을 받은 후에도 거절결정 시 등록가능으로 판단된 청구항만을 분리해서 출원할 수 있는 분리출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3.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등에 대한 민사적 조치 마련 (부정경쟁방지법) (2022년 4월 20일 시행)

일본에서 말하는 '한정 제공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부정사용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부정취득·사용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것과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4. 퍼블리시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2022년 6월 8일 시행)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 5.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상표 사용의 명문화 (상표법) (2022년 8월 4일 시행)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전신·수출·수입하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 행위에 추가되었습니다.

### 6. 재심사제도 도입 (상표법) (2022년 8월 4일 시행)

심사관의 상표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해 지정 상품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으로 간단히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 부분거절제도 도입 (상표법)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 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II. 지식재산 관련 이슈

### 1. 한국특허청, 정권 교체 후 첫 지식재산분야 종합계획 발표

2022년 8월 18일, 한국특허청은 새 정권 출범 후 첫 지식재산분야 종합계획인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2. '기술분야별 심사실무 가이드' 번역 완료

2022년 1월에 대폭 개정된 '기술분야별 심사실무 가이드' 임시 번역이 완료되어 2022년 10월, 홈페이지(https://www.jetro.go.jp/korea-ip)에 게재했습니다.

### 3. KIPRIS 간이 매뉴얼 발행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는 2022년 10월, KIPRIS 간이 매뉴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IPG)


## 2021년도 건의사항 결과 보고

한국IPG는 서울 재팬 클럽(SJC)이 매년 정리하여 한국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애로사항 중 지식재산 분야 관련 내용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식재산 분야 관련 건의사항으로는 총 11개가 한국 정부에 제출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기에 보고드립니다.

### 2021년도 지식재산 분야 건의사항 및 한국 정부 답변

건의사항	한국 정부 답변(개요: 일부 수정)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보호범위 명확화	<b>[장기검토]</b> 현재 한국에는 개정 특허법 관련판례가 전무. 향후 판례 증가 시 침해가이드라인 등 제작 고려.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답변기간 및 거절 결정 불복 청구 기간 장기화	<b>[실시완료]</b> 2022년 4월 20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거절 결정 불복 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 <b>[장기검토]</b> 거절이유통지 답변 기간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심사 처리 기간 지연 및 등록 지연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 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예정.
특허법조약(PLT) 조기 가입 (한국은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일본어 출원 및 지정기간 경과 후 연장 신청이 인정되지 않음)	<b>[장기검토]</b> PLT의 주요 내용은 이미 특허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간접침해 규정 확대 ('전용품' 이외에 '전용품을 아니나 특허상의 중요 부품'도 '약의'에 의한 공급일 것을 조건으로 간접침해를 인정하도록 그 성립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	<b>[장기검토]</b> 간접침해 인정 범위 확대 필요성 충분히 인지. 향후 관련 특허법 개정안을 재작성하여 추진 예정.
관련디자인제도 확대 (1.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청, 2. 최초 '기본디자인' 디자인 출원일 이후 10년 이내에 디자인 등록 출원한 경우 등록 가능하도록 요청)	<b>[수용]</b> 관련디자인 등록 요건 완화를 위한 개정법 추진 예정.
디자인법 보호 대상 관련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요청)	<b>[수용]</b>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한 개정법안 추진 예정.
특허권 존속 연장 제도에서의 외국 임상시험 기간 가산 및 보완 기간 산입, 심판 단계에서의 연장 기간 보정 수속	<b>[수용불가]</b>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 임상시험은 해당국가의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며, 한국 국내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시험이 아닌.

등록 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 연장 (특허법 제92조의2)에서의 출원인 귀책사유에 의한 지연 기간 제외	<b>[수용불가]</b> 해외 주요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수립하고 있으므로 수용 불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Patent Linkage)의 문제점(판매 금지 처분 제외 사유 삭제)	<b>[수용불가]</b> 해당 조항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
통상실시권 대항 요건	<b>[장기검토]</b> 2015년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폐기. 통상실시권의 당연대항제도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있어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 예정.
특허 취소 신청에서의 특허취소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 장기화	<b>[수용불가]</b> 심사 기간 지연에 의해 권리 불안정 기간이 장기화된다는 관점, 답변 기간은 수수료 납부를 통한 연장 신청으로 충분히 그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재외자라면 한정해서 기간을 연장시켜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수용 불가.

위와 같이 몇 가지 건의사항은 앞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퀵즈 정답

정답은 **@PATINEX**입니다. PATINEX는 PATent Information Expo의 줄임말로, 국내외 특허 정보 전문가의 강연이 진행되는 '컨퍼런스'와 특허 정보 서비스 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로 구성된, 한국 최대 규모의 국제 특허 정보 박람회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지식재산 뉴스 게재)



※JETRO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 ① 특허청 내년도 예산 7,390억원, 5.5% 확대 편성 | 한국특허청 (2022.8.30)

특허청은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 대비 5.5% 증가한 (+383억원) 7,39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증가하였으나, 국가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8억원 감소한 3,63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중점 투자 방향별 사업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1,395억원)
2.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421억원)
3.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400억원)
4.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386억원)
5.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등 국민참여예산(3억원)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 ② 반도체, 2차전지 등 6대 전략기술분야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 지원 | 한국특허청 (2022.8.30)

특허청은 반도체 등 전략기술 개발 및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개별기관 맞춤형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특허청은 초격차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의 3개 분야 17개 과제와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 인공지능·로봇, 사이버 보안의 3개 분야 17개 과제까지, 총 34개의 지원과제(기관)를 선정하였다.

특허청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 지원을 받은 과제에서 창출된 특허기술은, 일반 연구개발 과제에서 창출된 특허기술과 대비해서 산업계 활용가치가 높았는데, 지난 5년간(2016 ~ 2020년) 우수특허·해외 특허 등 질적 특허성과는 1.7~2.1배, 특허이전율은 1.3배,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는 3.9배의 성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이번 지원도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의 전략 기술분야 원천·핵심특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특허청, 제18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2) 개최 | 한국특허청 (2022.9.1)

특허청은 혁신 기업의 특허정보 활용 전략을 공유하고 특허정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PATent INformation EXpo) 2022'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1일부터 2일까지 2일 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식재산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다"라는 주제로,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기업-기관의 혁신에 관한 다양한 강연과 전시행사가 준비되며, 온라인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도 실시간 관람이 가능하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박람회는 국내외 특허정보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와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로 구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특허정보 박람회이다.

### ④ 특허청,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최종 결정 | 한국특허청 (2022.10.4)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2022. 9. 28)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022년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하였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하였다. 다만, 작년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였다.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한편, 작년 12월 우리나라 특허청은 미국·유럽·중국 등 총 7개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회의(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File No.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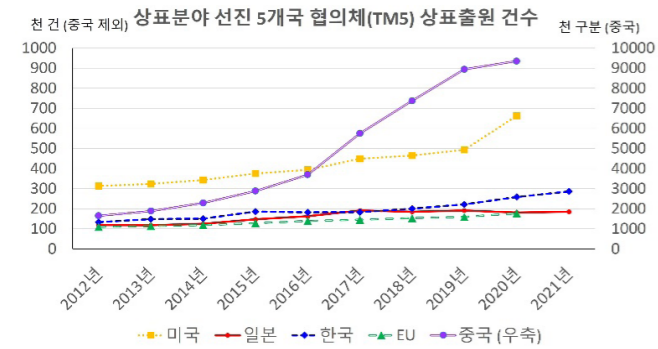
## 한국의 상표 심사기간, 장기화 조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상표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에 걸리는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그리고 한국의 상황에 대해 통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전 세계적인 상표출원 증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상표출원 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 상표출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에 접수된 상표출원 건수를 보십시오.



출처: 한국은 한국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연보'(2012년~2020년) 및 '지식재산 통계 FOCUS'(2021년), 그 외 국가는 일본 특허청 'JPO Status Report 2022' 기반 필자 작성

우선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중국을 보면(중국은 출원 건수를 공표하지 않고 구분 수만 공표), 2012년 164만 8,000구분에서 2020년 934만 8,000구분으로 무려 5배 이상이나 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상표출원은 대부분이 중국 내 출원인이 출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 출원 증가가 그 배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같은 시기에 31만 3,000건에서 66만 2,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만, 이는 중국발 미국출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증가세는 작지만, 일본은 2012년 11만 9,000건에서 2021년 18만 5,000건으로 50% 이상 증가했고 한국은 2012년 14만 2,000건에서 2021년 25만 7,000건으로 약 80% 증가했으며, EU는 2012년 10만 9,000건에서 2020년 17만 7,000건으로 약 60%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상표출원은 중국과 같이 국내 출원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상표출원이 증가한 주요인은 국내 출원의 증가입니다.

법률로 심사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 각국에서 상표출원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 2분기 1차 심사기간이 2.7개월이었는데 비해 2022년 2분기에는 7.7개월로 늘어났습니다(USPTO, Trademark Dashboard). 일본에서도 2016년도 4.9개월에서 2020년도 10.0개월로 연장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심사 체제 강화 및 효율화로 8.0개월로 단축되었지만 이전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허행정 연도보고서 2021년판 및 2022년판).

### 2. 한국 상표 심사기간의 현황 및 전망

한국에서도 상표의 1차 심사기간 연장이 문제가 되고 있어, 2016년 4.8개월, 2020년 8.9개월이었는데 비해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2년 5월에는 14.8개월로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권리 부여 전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상표권의 설정등록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더욱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특허청도 마냥 수수방관하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상표 심사관 수는 2011년 101명에서 2021년 149명으로 50% 정도 증원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대폭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심사기간의 장기화는 지속될 듯합니다.

### 3. 심사기간 장기화의 대책

일본의 조기심사제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상표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활용하면 2~3개월만에 1차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표 심사기간은 당분간 장기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히 결과가 필요한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sup>IPD</sup>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츠치야 신고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신·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괄실 실장보좌, 심판관 과장보좌, 주임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현직

File No.168

## 한국 특허청, 정권 교체 후 첫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부터 101일째, 그리고 한국 특허청 이인실 청장이 취임한 지 80일째가 되는 2022년 8월 18일, 한국 특허청은 신정부 출범 후 첫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해설하겠습니다.

### 1. 현재까지의 경위

이전 본고에서 소개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전체 186페이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지식재산과 관련한 언급이 제목과 본문을 합해 몇 줄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산업 통상자원부)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와 AI·빅데이터 기술 활용 특허행정 혁신 추진'

이처럼 신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단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던 가운데, 2022년 8월 18일, 한국 특허청은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지식재산분야 종합계획인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2.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 내용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 반도체 분야 퇴직 전문인력 특허심사 투입, 배터리·생명공학(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 → 심사 전문성은 향상, 해외 기술 유출은 방지
- 반도체 등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 빠른 심사로 시장 조기 선점 지원
- 거대 인공지능(기존 대비 100배 처리능력) 기반 지능형 심사 시스템 구축 → 유사 특허·상표 검색 정확도 향상, 방식심사 자동화

#### (2)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

- 특허박스제도와 직무발명제도 지원 등 기술혁신 기업 성장 도움
- 2027년까지 지식재산금융 23조 원(2021년 6조 원)으로 대폭 확대

-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 도입 추진

#### (3)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신흥시장인 베트남·인도에 특허관파견 등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100개 이상 세계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존 8개)으로 대폭 확대

### 3.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

이번에 발표된 '정책방향'에는 2021년 12월에 전 정부 하에서 수립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을 답습하는 부분도 있는 한편, 반도체 분야 퇴직 전문인력 등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함에 따른 특허심사 신속화, 특허박스 제도 도입(※1), 비밀특허 제도 도입(※2)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번에 새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 1 특허 특허권 등 특정 종류의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감을 인정하는 조세 조치. 한국에서는 2021년 4월에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2 한국에서는 국방 관련 기술에 이미 비밀특허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방향이 향후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up>IPD</sup>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츠치야 신고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신·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괄실 실장보좌, 심판관 과장보좌, 주임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현직

# 특허출원 세계 3위를 향한 한국 정부의 야망?



지난 본고에서는 한국 특허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지식재산분야 종합계획인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이하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지면 관계로 전하지 못했습니다만 해당 계획을 알리는 보도자료의 제목은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이끈다'로, 한국 정부의 야망이 엿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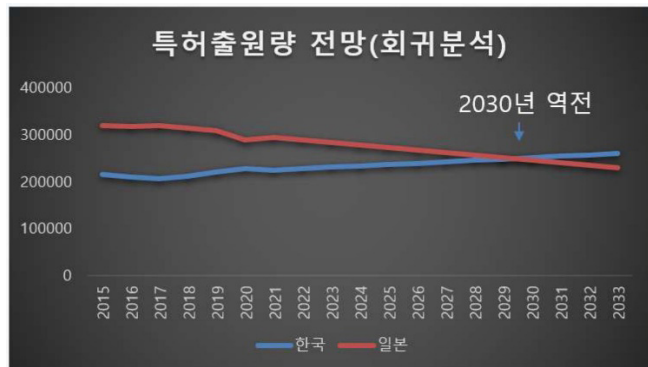
## 1. 세계 지식재산 업계 내 한국의 입지

세계적으로도 산업재산권 출원이 많은 5개국 특허청(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5대 특허청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지식재산 제도 논의를 주도하는 입장입니다. 5대 특허청의 출원 건수는 특허에서 전 세계의 약 85%, 상표에서 전 세계의 약 절반에 이르며 한국도 그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허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출원이 연간 약 160만 건, 미국에 대한 출원이 연간 약 60만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일본에 대한 출원은 약 28만 9,000 건, 한국에 대한 출원은 약 23만 8,000 건, 유럽에 대한 출원은 약 18만 9,000 건(모두 2021년 기준) 순으로 한국에 대한 출원 건수는 현재 세계 4위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세계 3위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곧 특허출원 건수에서 일본을 앞지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특허출원 세계 3위를 향한 달성 방법은?

앞서 언급한 종합계획의 본문은 지난 번 소개한 것처럼 특허출원 세계 3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종합계획에 '참고1'로 첨부된 문서에는 '2027년 글로벌 IP TOP 3로 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참고3'에는 (2027년이 아닌) 2030년에 한일 특허출원 건수가 역전하는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 특허청 2022년 8월 18일 자 보도자료

하지만 이 그래프는 한일 양국의 최근 출원 건수를 직선을 근사해 연장했을 뿐 구체적으로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 달성 방법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가 왜 감소세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 3. 야망의 실현 가능성은?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는 2001년에 약 43만 9,000 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양에서 질 중심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 감소세에서 답보세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특허출원은 일본 내 대기업의 출원이 많으며 출원건수가 감소한 배경에는 정말 필요한 특허만 출원하는 탄탄한 출원구조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가 가까운 미래에 급증하는 상황은 적어도 일본 내부의 요인으로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한편 한국의 특허는 중소기업과 개인의 출원이 많으며 일본과는 출원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출원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야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주요국의 인구 100만 명당 출원건수를 보면 한국은 3,319 건으로, 일본 1,943 건, 중국 890 건, 미국 869 건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한국 특허청 '2020년 지식재산 백서'),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갈'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인구 당 출원건수는 혁신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는 반면 과도한 출원은 이른바 '군살'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특허출원 건수가 과연 몇 건일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주요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목표 설정에 타당성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초치야신고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신·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괄실 실장보좌, 심판과 과장보좌, 주임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현직